전통시장 산닭 버젓이 유통…AI 방역 '구멍'

70여일째 유통 금지 조치 불구 생 가금류 음성적 거래

해당 지자체 주1회 형식적 점검만…실태 파악도 못해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잠잠하던 AI가 해남·강진에서 잇따라 추가 발생하는 등 확산되면서 호남지역에 36시간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전통시장에서는 버젓이 산닭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닭·오리 등 생(生) 가금류의 전통시장 유통은 지난해 11월19일 이후 70여일째 금지된 상태다.

27일 전통시장 소비자들에 따르면 광주 A 전통시장의 가금류 판매점에서 산닭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실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A전통시장 닭 판매점을 방문해 '살아있는 닭'을 주문하자, 처음엔 "없다"고 손사래를 치던 주인이 "어디다 쓸거냐? 이틀 뒤 산 장닭이 온다"고 넌지시 주문을 받았다. 그러면서 "판매대금은 2만5000원이며, 연락처를 칠판에 만어놓고 기다리라"고 속삭였다.

인근의 닭 판매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곳에서도 "처음에는 없다"고 말하다가 소비자가 돌아가려하자 말을 바꾸며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보증금 1만원을 걸고 남은 1만5000원을 당일 지불하면 이틀 뒤 새벽 5시께까지 장닭을 구해준다는 것이었다.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음성적인 예약주문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19일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농림부는 유통강화 관리방안을 마련해 같은해 12월15일 유통을 재개했지만 사흘 뒤 부산에서 토종닭 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같은달 19일 다시 유통을 금지했다. 이후 전통시장과 식당에서는 71일째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만약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했다가 적발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금류 유통은 '죽은 상태'로만 가능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와 각 자치구의 이동승인을 받아 소독을 마친 가금류를 도축장에서 도축·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가 유통되고 있는데도 AI 방역관리를 맡은 지자체에서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매주 1차례씩 전통시장을 돌며 점검·소독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담당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실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산닭이 거래된다면 AI 확산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전남, 전북 가축 일시 이동 중지

강진 등서 AI 잇단 재발생…내달 1일 정오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광주, 전남, 전북 등에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1일 42일 만에 해남에서, 다시 24일 전북 고창에 이어 강진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전남과 전북이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방역 당국이 집중관리에 나선 것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8일 0시부터 3월 1일 정오까지 36시간 동안 광주·전남·전북지역 가금류 축산농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나 차량 출입은 금지된다. 축산 관련 작업장에도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이 제한된다.

강진군 신전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는 지난 26일 도내 오리 농가 일제 검사 중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남 AI 발생 건수는 7개 시·군, 22건으로 늘었다. 올겨울 강진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21일 해남에서 AI가 발생한 뒤 충남 청양, 전북 고창 등에서 잇따라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전남 모든 오리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조사 대상 114개 농가 가운데 77곳 시료를 검사한 결과 강진에서 유일하게 의심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7곳 시료는 경남·북, 광주로 보내져 조사 중이다.

강진 농장은 지난 21일 AI가 발생한 해남 농장과 17km 떨어졌으며 몇십m 거리에 철새가 드나드는 소하천이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새롭게 확산 조짐을 보이는 H5N8형 AI에 오리가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해 오리 사육량이 많은 전남·북의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겨울에는 주로 H5N6형 AI가 주로 발생했으나 이달 초부터는 4건의 H5N8형 AI가 발생했다.

H5N8형은 특히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설가 리명한·화가 허달용·연극인 정찬일씨 등 광주·전남 문화예술인 38명은 27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헌법적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소송대리인단은 기자회견 뒤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헬기 기총소사 국과수서 공식화 된다

기념재단 시민들에 기증받은 군사용 탄피 감정 의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헬기가 시민 진압 등 작전 과정에서 기총소사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공식화될 전망이다.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해 국과수가 올 초 "헬기 사격에 의한 흔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자 20㎜ 벌컨포 탄피, M 60기관총 탄피, 40㎜ 고폭유탄 탄피 등 군용 탄피 기증이 시민에게서 쏟아졌고 5·18기념재단은 군(軍) 문서, 5·18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계엄군 기총소사 의혹을 기정사실화 한 〈광주일보 2월24일자 1면·6면〉 상황이다.

5·18기념재단은 시민들에게서 최근 기증받은 군사용 탄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다고 27일 밝혔다. 5·18재단은 국과수 측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달 중 국과수에 탄피 실물을 보내 탄환 명칭, 5·18 관련성 등을 규명해달라고 광주시를 통해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이 국과수에 보낼 예정인 감정물은 지난 1980년 5월 광주 남구~남평 구간에서 발견된 벌컨포 탄피 3점, 같은 시기 봉선동 봉주초등학교 인근 논에서 발견된 벌컨포 탄피 3점 등이다.

앞서 5·18재단은 지난 23일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격용 코브라 헬기(AH-1J) 2대가 작전 과정에서 벌컨포를 최소 1000발 이상 사격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며 기총소사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정부기관인 국과수를 통해 5·18 기총소사 의혹에 관한 진실규명이 한걸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khh@

"국민 분열 야기하는 시위에 태극기 사용 말라"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성명…탄핵 반대 극우세력에 분노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27일 보수단체를 자처하는 일부 단체를 겨냥해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시위에 태극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이날 '3·1절 성명'을 내고 "최근 보수단체의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태극기를 사용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국기(國旗)는 온 나라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한다. 이런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데 태극기가 사용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복회는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은 태극기 아래서 일제를 응징하려는 비장한 결의를 다졌고 일제 감시를 피해 태극기를 몸에 숨겨가며 독립투쟁을 펼치셨다. 일본군과 전투 중에 전사할 때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품에 거두셨다"며 "집안에 숨겨둔 태극기가 발각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은 선열들도 수두룩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가 제 98주년 3·1절을 이틀 앞두고 태극기의 상징성, 3·1운동 정신, 태극기에 담긴 의미 등을 성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극우세력이 시위 도구로 태극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수단체를 자처한 일부 단체 회원들은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맞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 태극기 훼손 논란을 불러왔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태극기를 특정 정파 및 특정 세력이 주도한 시위 목적 달성에 쓰고 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복회는 이와 함께 일부 극우세력이 시위 과정에서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행위에 대해서도 "독립운동 선열들이 통탄할 일"이라며 "적어도 3·1절만큼은 민족이 하나가 돼 자주독립을 외쳤던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태극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분노조절 장애 상습 폭행 10대 사다리차까지 동원 검거

쌍나팔

○…광주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상무지구에서 행인을 상대로 잇따라 폭력을 행사한 10대를 경찰이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주거지에 진입한 뒤 체포.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19)군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상무지구 모 룸소주방 앞을 지나는 B(24)씨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7시에는 상무지구의 한 포장마차 앞을 지나던 행인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

○…경찰은 "피의자가 갑자기 시비 걸며 무자비한 폭력을 쓴다"는 신고를 받고 출석 요구를 통보했지만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을 회피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주택 2층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아 구속.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광주 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월세수익내면서 내 건물 확보)
추천
■ 본사건물 / 지사 건물
연구실, 학교 연구소, 최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시세가 60억
■ 매 가 38억
■ 문의 010-7384-7800 / 062-527-76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광주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 평수 15평
◈ 평수 12평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010-7384-7800
062-527-76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융 2천)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보1천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융 5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깔끔)
매가 2억3천
☏ 062-511-7800
062-527-7600

법률경매 ㈜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37억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토 48평 ,건 160평
서부소방서 1분
4차선 도로 접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룸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광산구 송월동 (상가건물)
토 226평 ,건 86평
광주 송정역 / 광산구청 1분
2차선 도로 접 / 코너 자리
▶감정가 14억5천 → 최저가 14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십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062-527-7600